

뉴캐슬 생독백신으로 양계분야 공략

메리알사는 동물용 의약품과 양계유전학 분야 개발 향상에 주력하는 세계적인 동물약품 회사이다.

한국 진출 10년이 넘으면서 국내 양계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 양계부분 중 뉴캐슬 생독백신 분야에서 판매 1위를 연속 기록하는 메리알코리아(주)를 찾아 양계백신사업 분야에 대해 들어보았다.

양계분야 집중



▲ 메리알 코리아 아시아 기술담당과 양계총괄 이사를 맡고 있는 이동우 박사

메리알은 미국의 Merck사와 프랑스의 Sanofi-Aventis사의 공동투자로 설립되어 1997년 메리알코리아(주)(대표이사 이성희)를 출범하면서 국내 일반의약품과 백신의 연구 개발을 토대로 동물용 의약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크게 양계 부분, 대가축 부분, 애완동물 부분을 집중 연구하면서 각 축종의 생산성을 높여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2001년 연매출 100억을 돌파했고, 지난해에 백신시장에서 국내 3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A제품은 지난 1991년에 출시되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 연속 국내 판매 1위를 보이면서 뉴캐슬 생독백신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ND백신 업계 연속 1위

A제품 백신주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의 개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백신 접종 후 한 개체는 호흡기도에, 다른 한 개체는 장관내에 존재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이중증식성질(Dual replication trorism) 때문에 VG/GA 독주가 최소한의 호흡기 부작용으로 최대한의 방어력을 제공하게 된다.

VG/GA는 기존 뉴캐슬 균주와는 차별화된 균주로 자연적으로 분리된 무병원성 균주로 강독형 뉴캐슬병에 대해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0년 뉴캐슬 백신 판매량은 연간 10억에서 현재는 30억원까지 3배가 증가했고, 감보로병 예방 백신 B제품은 5억에서 현재 10억으로 2배가량 매출이 늘어나면서 판매량에서 보듯이 백신 효능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당시에 비해 10% 가량의 양계시장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이는 브랜드 이미지를 공략한 메리알코리아의 영업 전략이 있었기도 했고, 현재까지 700~800여 차례의 세미나 강의와 자문역할을 도맡아 했던 이동우 이사의 공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계에 올인

메리알코리아(주) 양계 총괄이사인 이동우 이사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해 조류질병학 석사과정으로 감보로병에 대해 전공하면서 졸업 이후 미원(현, 대상) 축산과학연구소에서 영양, 대상 마니커에서 사양과 방역관리를 담당하면서 질병에 대한 이론과 필드상황을 터득한 양계전문인이다. 서울대 수의과 대학 박사 학위 후 지난 2000년 메



리알코리아(주)에서 질병 예방 백신에 대한 연구로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150여 국에 메리알사가 분포되어 있고, 아시아권에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10여 개국이 있다. 이동우 이사는 이론과 현장이 접목된 경험을 토대로 지난 2005년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질병 및 예방백신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메리알아시아 10여개국의 기술담당(ND, IBD)을 지낸 바 있다. 짧은 기간 있었지만, 미국과 멕시코 등지에서 관련 교육을 수료했고, 일본 등 아시아권의 질병 상황을 통한 기술매니저(Technical Manager)와 비즈니스매니저(Business Manager)로 자문인 역할을 맡기도 했다.

농가 주의 사항

이동우 박사는 “백신에 대해 새로 시작하려는 양계인 보다, 오히려 10년, 20년간 경험한 노하우를 고집해 자기만의 비과학적인 고정관념으로 백신을 실시하는 농가가 더러 있다.”며 “기술은 지속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는 농가는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편법내지는 틀을 벗어나 공통적인 상식과 원칙에 충실한 방역, 사양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한다.



▲전세계 메리알사 임직원

양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 연구개발

국내 양계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예방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직원들은 양계를 위한 백신회사로서 한국양계 사업에 일조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메리알에서는 현재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백신을 생산

하기 위해 지속 개발 중에 있어 양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내 양계시장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전한다.

전 세계 메리알사에서 한국시장은 8위 정도이고,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예방에 철저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예전의 경우 백신에 대해 보통 보험의 개념으로 대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반해, 오늘날은 적극적으로 예방백신을 실시하고 면역억제를 통한 질병감소의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질병까지의 억제를 통해 전체적인 양계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백신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백신 자체의 큰 의미를 부여해 앞으로 양계산업 발전에 일조하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

♣ HPAI 예방을 위한 양계농가 실천사항 ♣

1. 농장 주변의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 외부인이나 농장출입 차량을 제한하고 출입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3. 발판소독조를 구비시키고 계사내 출입시에는 반드시 신발을 갈아 신는다.
4.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철새도래지 주변의 방문을 자제한다.
5. 철새의 접근을 막기위해 그물망을 설치하고 사료빈 주변에 사료잔재를 없앤다.
6. 농장 주변의 야생동물 특히 설치류를 철저히 박멸한다.
7. 1회용 종이난좌의 농장반입을 차단한다.
8. 계분관리를 철저히 한다.
9. 의심계가 발견되면 즉시 양계협회, 시·도방역기관 등에 신고한다.